

38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알록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열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젠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귀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줄게
 ㉣ 손때 수줍은 분홍 땀기 휘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

* 열구며: '열리며'의 함경도 방언.

* 불술기: '기차'의 함경도 방언.

(나)

그리고 나는 우연히 ㉠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눈은 퍼부었고 거리는 캄캄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쓰고
 희고 거대한 서류뭉치로 변해갔다
 무슨 관공서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리창 너머 한 사내가 보였다
 그 좁고 큰 방에서 서기(書記)는 혼자 울고 있었다!

눈은 퍼부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중지시킬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다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기형도, 「기억할 만한 지나침」 -

(다)

㉠ 자새*에 북방 서리 무섭게 쳐도 紫塞胡霜重
 남천에는 따뜻한 기운 통했지. 南天暖氣通
 물과 구름 밖을 외롭게 날다가 孤飛水雲外
 잘못하여 그만 그물에 걸렸네. 誤墮罾羅中
 남의 뜻에 따라 마시고 쪼며 飲啄隨人意
 갈 길 막혔음을 한탄하며 사네. 棲遲恨路窮
 포구 모래밭 달빛 아래 잠들고 浦沙眠夜月
 내 긴 물가 갈숲에서 놀았겠지. 煙渚戲蘆叢

㉡ 떼 지어 먼 바다를 건너고 接翅鱗遙海
 줄 이어 먼 바람에 울었겠지. 聯行叫遠風
 사냥꾼 화살을 길게 시름하다 長愁弋者矢
 겨우 막요*의 활만 피했구나. 徒避莫徭弓

[본정]도 다스림이 이와 같으니 繕性能如此
 태어날 때부터 본디 공평한 것 아니라네. 生身本不公
 무리를 생각하는 게 너 홀로 인색했으니 念群渠獨嗇
 근심이 없다 한들 네 어찌 풍족하랴. 無患爾何豐
 미물에 있어서 비록 모습 다르지만 在物雖形異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와 같겠지. 懷鄉與我同
 어느 날에야 여섯 나라를 길러 何當養六翻
 구름 하늘로 잘 날아가려나. 好去向雲空

- 이달, 「유씨 집의 외로운 기러기를 읊다[詠柳家孤鴈]」 -

* 자새: 만리장성을 가리키는데, 기러기들이 여기서 여름을 남.

* 막요: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부족.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통해 얻은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대상이 처한 상황과 관련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⑤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나 있다.

2 <보기>를 참조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에서는 함경도 사내인 '나'와 전라도 가시내인 '너'를 등장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① 1연에서는 '눈'과 '얼굴'의 모습을 통해 '너'가 고향인 전라도에서 겪었던 비참한 삶이 부각되고 있다.
- ② 3연에서는 북간도까지 오게 된 '나'와 '너'의 슬픈 사연을 '가난한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다.
- ③ 4연에서는 '너'가 머나먼 전라도에서 북간도로 오는 장면이 '나'의 상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④ 5연에서는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너'를 위로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6연에서는 '사라질 게다가'의 반복을 통해 '나'의 안타까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신이 몸소 보거나 행했던 체험은 구체적인 시공간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어떤 체험에 대한 기억은 그 시공간의 상황이나 분위기와 결부되어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기억은 새로운 시공간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강하게 촉발되어, 과거의 체험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 ① 1연의 '지나게 되었다'와 '한 사내가 보였다' 등을 통해, 1연의 체험이 '나'가 직접 행하거나 보았던 것임을 알 수 있어.
- ② 1연의 어두운 '거리'에서 '회고 거대한 서류뭉치로 변해'가는 '건물'의 이미지를 통해, 1연의 '나'가 느끼는 시공간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
- ③ 1연의 '침묵'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의 상황으로 인해, '나'의 성찰이 방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④ 2연의 '밤', '텅 빈 사무실' 등은, 2연의 '나'에게 1연의 시공간에 대한 기억을 촉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있어.
- ⑤ 2연의 '텅 빈 사무실'에 있는 '나'는, 1연의 '좁고 큰 방'에 있던 '사내'를 떠올리며 그 '사내'와 자신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고 있어.

4 <보기>는 '본성'과 관련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어나 시구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본성(本性)은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본바탕을 뜻한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본성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 ① '그물에 걸렸네'는 기러기가 본성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 ② '남의 뜻'에 따라 사는 상황은 기러기가 '본성'에 맞게 살지 못하는 처지를 나타낸다.
- ③ '모래밭'과 '갈숲'에서 노니는 모습은 '본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기러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④ '근심이 없다 한들 네 어찌 풍족하라'에는 기러기가 '본성'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한 이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나타난다.
- ⑤ '어느 날에야 여섯 날개를 길러 / 구름 하늘로 잘 날아가려 나'에는 기러기가 '본성'을 회복한 삶을 살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공간이다.
- ② ㉠과 ㉡은 모두 대상과 화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 ③ ㉠과 ㉡은 모두 대상이 지니고 있는 아픔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공간이다.
- ④ ㉠은 과거에 대한 화자의 회상이, ㉡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전망이 나타나 있는 공간이다.
- ⑤ ㉠은 화자가 대상에게서 거리감을, ㉡은 화자가 대상에게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공간이다.

6 ㉠~㉢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추상적인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비유와 반복을 통해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시각적 이미지로 대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침 점심을 나는 일쭉 걸렸다. 거지 같은 위를 채우기 위해 비를 맞으면서까지 누나가 있는 두부 공장으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나의 얼굴을 보는 일도 반갑지 않았지만, 거지다 다리 한 짝이 없는, 두부살의 오빠를 보는 일은 더 싫었다. 친구 태길이가 약이 오를 때면 매번 들먹이듯, 그가 내 미래의 매형이란 사실 때문에 나의 굴욕감은 더 컸는지도 모른다. 도대체가, 누나는 왜 두부살의 네 오빠들 중에서 하필이면 다리 한 짝을 전쟁터에다 내버리고 온 사내를 골라잡은 것인지 그 점이 나를 더 속상하게 했다.

저녁마저 거르는 날은 누나 쪽에서 나를 찾아왔다. 치마폭에 감추어 온 것들을 가만히 내 머리맡에 내려 두고는 잠자코 돌아섰다. 누나는 진작부터 나의 적의를 눈치 채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그녀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때로는 내 이부자리 속으로 살며시 기어들어 자고 가기도 했는데 그런 날은 두부 공장에서 밤일이 없는 때뿐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나에 대한 나의 적의가 조금이라도 늦추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지난 겨울에 비해 누나는 확실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고, 친구 두부살처럼 뽀얗게 살이 올라 있었다. 수증기가 자욱한 작업장에서 누나가 때때로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있었다. 그 고된 노동과 천대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지극히 행복한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어머니가 마침내 숨을 거두었을 때 그토록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가 이제는 행복한 것이다. 친구 두부살의 집에서, 다리 한 짝이 없는 그 사내의 곁에서 말이다.

누나의 그 건강과 행복이 나의 적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때로는 적의를 넘어 어떤 혐오감까지도 느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일테면 누나에게서 그 기분 나쁜 냄새를 맡았을 경우였다. 그랬다. 그것은 언젠가 어머니를 따라 외삼촌 댁에 갔다가 그에게서 맡은 바 있었던 그 녹슨 총기 냄새였다. 외삼촌은 다리 대신 팔 한 짝을 전쟁터에다 묻고 온 사내였던 것이다.

다리 한 짝이 없는, 두부살의 오빠에게서도 분명히 그 냄새가 났다. 누나가 모처럼 내 곁에서 잠들어 있던 어느 날 밤, 그자가 느닷없이 우리의 방으로 굴러들었던 것이다. 그를 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나는 기왕에 민며느리로 들어간 사람이었고, 나는 또 그 사내의 속절없는 처남인 셈이었다. 당당한 투입자를 우리는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그는 흠뻑 젖어 있었다. 외양은 빗물에 젖어 질척거렸고 영혼은 술에 젖어 마비돼 있었다. 그가 좁은 방 한가운데에 사지를 내던지고 철버덕 드러누웠을 때, 솔직한 내 심정으로는 대갈통을 목침으로 까 주고 싶었다. 하지만 야릇한 것은 누나의 태도였다. 그녀는 다소 놀란 표정이긴 했지만 그러나 곧 침착해졌다. 쌀자루처럼 널브러진 사내의 몸뚱이로부터 젖은 옷가지들을 한 겹씩 차근차근 벗겨 냈고 머리칼이며 얼굴이며 몸뚱이 등 더 이상 벗겨 낼 수 없는 부분들은 마른 수건으로 정성 들여 닦아 내고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힌 채 그녀의 거동만을 멍하니 지켜보았을 따름이었다. 아마도 누나는-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맹렬히 저항했다-정상이 아니다. 누나는 머리가 어떻게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누나의 얼굴에 광기는 없었다. 거의 아무런 표정도 담고 있지 않은, 지극히 담담하고 조용한 얼굴이었을 뿐이었다. "나 좀 도와 주렴."

☐ 누나가 내게 말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누나와 그

[A] 사내에 대한 적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왠지 거부할 수가 없었다. 누나와 둘이서 간신히 그를 한편으로 옮겨 뉘었는데 그때 나는 비로소 사내의 의족을 보았다.

[A] 삼십 촉짜리 흐릿한 조명 아래서도 그것은 차갑고 이물스럽게 거기 놓여 있었다. 날카로운 비수에 가슴이 찢리듯 나는 언젠가 만난 적이 있는 외삼촌을 기억해 냈고, 그리고 그에게서 말았던 저 녹슨 총기의 냄새를 다시 말았던 것이다.

[B] 밤새 땅을 파헤치느라고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 판자촌 골목 어떤 지점을 파헤쳐도 온갖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엠원 소총에서부터 박격포탄에 이르기까지, 부러진 대검에서부터 시작하여 탱크의 캐터필러 조각에 이르기까지, 군번이 새겨진 알루미늄 조각에서부터 깨진 철모에 이르기까지..... 모양도 크기도 용도도 각양각색인 그 물건들은, 그러나 한결같이 빨갛게 녹이 슬어 있었다. 지난 전쟁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없던 나는 몹시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소리쳤다.

"야, 여기다 여기! 바로 여기서 전쟁을 했던 거야....."

[C] 그리고는 문득 깨어났다. 문살이 흰하게 밝아 오고 있었다. 사내는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지만 누나는 단정한 차림새로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너 어디 아프니? 헛소리를 하게....."

[C] 그러면서 누나가 내 이마를 짚었다.

"치워!"

[C]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나는 썩 소리를 치며 누나의 손을 떨쳐 버렸다. 그리고는 흠이불 자락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썼다. 갑자기 누나가 혐오스러워졌다. 그녀의 손에서도, 몸뚱이에서도 녹슨 총기의 냄새가 물씬물씬 풍겼기 때문이다.

- 이동하, 「장난감 도시」 -

7. 위 글에 제시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처음에 올 것은? [1점]

- ① 어머니가 숨을 거둔다.
- ② '나'가 외삼촌 댁을 방문한다.
- ③ 두부살의 오빠가 우리 방에 찾아온다.
- ④ '나'가 꿈에서 깨어나 누나의 손을 뿌리친다.
- ⑤ '나'가 두부 공장에서 웃으며 일하는 누나를 본다.

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 ② 객관적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인물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체험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심리와 태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A]~[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는 '녹슨 총기'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작품이 한국 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녹슨 총기'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슨 총기의 냄새'는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비정상적인 현실에 대한 '나'의 심리적 반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A]의 '녹슨 총기의 냄새'는 '사내'에 대한 '나'의 심리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
- ② [A]에서 '녹슨 총기의 냄새'라는 공통점을 지닌 '사내'와 '외삼촌'은 '나'를 둘러싼 비정상적 현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B]를 통해 '녹슨 총기'가 전쟁의 상흔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B]에서 '나'가 전쟁과 관련된 꿈을 꾸 이후 '녹슨 총기 냄새'는 [A]의 '사내'에서 [C]의 '누나'로 전이된다.
- ⑤ [A]에서 [C]로 갈수록 '녹슨 총기 냄새'를 불러일으키는 '나'의 심리적 반응의 대상이 축소되고 있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결핍은 익숙하던 것이 사라진 데서 비롯한다. 그로 인해 결핍의 상황에 처한 존재는 주변을 이질적인 것으로 느끼게 되며, 그것은 주변에 대한 적대감으로 심화되기도 한다. 이질감과 적대감은 결핍에 빠진 존재의 내적 불안감의 표현이지만, 그 이면에는 결핍이 극복되기를 바라는 강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 ① 누나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결핍으로 인한 이질감과 적대감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고 어머니가 숨을 거둔 상황은 익숙하던 것이 사라진 '나'의 결핍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③ 두부살의 오빠에 대한 '나'의 혐오감은 '나'에게 익숙하던 존재였던 '누나'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누나에 대한 '나'의 맹렬한 저항은 누나를 잃은 결핍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강한 욕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⑤ 누나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적대감은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1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곳곳한 절개를 지닌 선비 자허가 밤에 독서를 하다가 잠이 든다. 꿈속에서 강 언덕을 거닐며 시를 읊던 자허는 복건을 쓴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임금과 신하들이 자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정자로 인도한다.

그들은 자허가 오는 것을 보고 일제히 마중을 나왔다. 자허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임금에게 나아가 문안을 여쭙고 되돌아와서 각자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맨 끝에 앉았다. 자허의 바로 윗자리에는 복건을 쓴 이가 앉았고, 그 위로는 다섯 사람이 차례로 앉았다. 자허는 어떻게 된 까닭인지 알 수 없어서 몹시 불안하였다. 그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부터 경의 꽃다운 지조를 그리워하였소. 오늘 이 아름다운 밤에 만났으니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 마오.”

자허는 그제야 의심을 거두고 일어서서 은혜에 감사하였다. 그 후 자리가 정해지자 그들은 고급 국가의 흥망을 흥미진진하게 논하였다. 복건 쓴 이는 탄식하면서

“옛날 요, 순, 탕, 무*는 만고의 죄인입니다. 그들 때문에 후세에 여우처럼 아양 부려 임금의 자리를 뺏은 자가 선위*를 빙자하였고, 신하로서 임금을 치고서도 정의를 외쳤습니다. 천 년의 도도한 세월이 흘렀건만 누구도 그 폐해를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네 임금이야말로 도적의 시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금은 얼굴빛을 바로잡고, “아니오. 경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오? 네 임금의 덕을 지니고 네 임금의 시대를 만났다면 옳거니와, 네 임금의 덕이 없을 뿐더러 네 임금의 시대가 아니라면 아니 될지니, 네 임금이 무슨 허물이 있겠소? 다만 그들을 빙자하는 놈들이 도적이 아니겠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복건 쓴 이는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며, “마음속에 불평이 쌓여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게 분개했습니다.”

하며 사과했다.

임금은 또,

“그만두시오. 오늘은 귀한 손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소. 다만 달은 밝고 바람이 맑으니,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어찌하리오.”

하고 곧 금포를 벗어서 갓마에 보내어 술을 사 오게 했다. 술이 몇 잔 돌아 임금은 그제야 잔을 잡고 흐느껴 울면서 여섯 사람을 돌아보았다.

“경들은 이제 각기 자기의 뜻을 말하여 남몰래 품은 원한을 풀어 봄이 어떠할꼬.”

했다. 여섯 사람은

“전하께옵서 먼저 노래를 부르시면 신들이 그 뒤를 이어 불까 하옵니다.”

하고 대답했다. 임금은 수심에 겨워 옷깃을 여미고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노래 한 가락을 불렀다.

강물은 울어 엘 제 실 줄을 모르는구나
 기나긴 나의 시름 이 물에 비길까나
 살았을 때는 임금이건만 죽어서는 고향뿐이거늘
새 임금은 거짓이라 나를 높여 무엇하리

고국의 백성들은 국적이 변했구나
예닐곱 신하만이 죽음으로 나를 따르는구나
 오늘 저녁은 어인 밤인가 강루에 함께 올라
 차가운 물결 밝은 달이 수심을 자아낼 때
 슬픈 노래 한 가락에 천지가 아득하구나

노래가 끝나자 다섯 사람이 각기 절구를 읊었다. 첫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먼저 읊었다.

어린 임금 못 받들은 내 재주 없음이라
 나라 잃고 임금 욕보이고 이 몸까지 버렸구나
 지금 와 천지를 둘러보니 부끄러울 뿐이로다
 당년에 일찍 스스로 도모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노라
 (중략)

울기가 끝나자 만좌는 모두 흐느껴 울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기이한 사내** 하나가 뛰어드는데 그는 썩썩한 무인이었다. 키가 훨씬 크고 용맹이 뛰어났으며, 얼굴은 포갠 대추와 같고, 눈은 셋벌처럼 번쩍였다. 그는 옛날 문천상의 정의에다 진중자의 맑음을 곁하여 늙름한 위풍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심을 일으키게 했다. 그는 임금의 앞에 나아가 빈 뒤에 다섯 사람을 돌아보며

“애달프다. **썩은 선비**들아, 그대들과 무슨 대사를 꾸렸단 말인가.”

하고 곧 칼을 뽑아 일어서서 춤을 추며 슬피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마음은 강개하고 그 소리는 큰 종을 울리는 듯싶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았다.

바람은 쓸쓸하여 잎 지고 물결 찰 제
 칼 안고 긴 휘파람에 북두성은 기울었네
 살아서는 충의하고 죽어서는 굳센 혼을
 내 금량^{*}이 어떻더뇨 강 속에 등근 달이로다
 함께 일을 도모한 것이 잘못이니 썩은 선비 책하지 마오

노래가 끝나기 전에 달이 어두컴컴해지고 시름겨운 구름이 끼더니,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몰아쳤다. 귀를 찢는 천둥소리가 울리니 모두가 홀연히 흩어졌다. 자허도 역시 놀라 깨어 본즉 곧 **한바탕의 꿈**이었다. 자허의 벗 매월거사^{*}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통분한 어조**로 말했다.

“대체로 보아 옛날로부터 임금이 어둡고 신하가 혼잔^{*}하여 마침내 나라를 망친 자가 많았다. 그런데 이제 그 임금을 보건대 반드시 현명한 왕이며, 그 여섯 신하도 또한 모두 충의의 선비인데 어찌 이런 신하와 이런 임금으로서 폐망의 화를 입음이 이렇게 참혹할 수 있겠는가. 아아, 이것은 대세가 이렇게 만든 것일까. 그렇다면 이는 불가불 시세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원인을 하늘에 돌리지 않을 수 없겠다. 하늘에 원인을 돌린다면, 저 착한 이에게 복을 주며 악한 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하늘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만일 하늘에 원인을 돌릴 수 없다면 곧 어둡고도 막연하여 이 이치를 상세히 알 수 없이 유유한 이 누리에 한갓 지사의 회포만을 돌을 뿐이구려.”

— 임제, 「원생몽유록」 —

*요, 순, 탕, 무: 고대 중국의 성군(聖君)들.
 *선위: 군주가 살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군주의 지위를 물려주는 일.
 *금량: 마음속에 깊이 품은 생각.
 *매월거사: 생육신 중 한 명인 김시습의 별호.
 *혼잔: 어리석고 못나서 사리에 어두움.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관점으로 인물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전기적 요소를 활용해 인물의 신이한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대화와 삽입된 노래를 통해 인물들의 심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1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금은 왕위를 잃은 후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다.
- ② 자허는 신하들 사이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 ③ 기이한 사내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충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복건 쓴 이는 임금의 지적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⑤ 첫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임금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임금은 남효온이 지은 사육신의 전기인 「육신전(六臣傳)」의 주제를 수용하여 「원생몽유록」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에는 세조에게 폐위당한 단종과 절의를 지켜 그의 복위를 도모한 사육신이 등장하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당시 공론화하는 것을 금기로 여기던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분강개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임금’은 단종을, ‘예닐곱 신하’는 단종에게 절의를 지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새 임금은 거짓’은 작가가 등장인물을 통해 세조에 대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씩은 선비들’이라는 ‘기이한 사내’의 질책에는 절의를 지키지 않고 세조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비분강개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한바탕의 꿈’을 통해 당시에 금기시되던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통분한 어조’로 매월거사가 한 말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한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14 윗글의 ‘자허’가 ‘임금’에게 편지를 쓴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은 삼가 전하께 글을 올리옵니다. ① 꿈속에서 소신이 전하를 알현했을 때 전하께서 고결한 선비로 대우해 주셔서 감격했습니다. 전하께서 선위에 대해 논하실 때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 ② 복건을 쓴 자와 달리 전하께서는 선위를 한 옛 임금들과 선위를 핑계로 대는 역적들을 아울러 비판하신 것 같았습니다. 황송하옵게도 전하께서 소신을 위해 비단 도포를 팔아 술을 사 오게 하실 때는 정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술자리에서 ③ 자연물에 의탁하여 마음을 드러내신 전하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노래까지 끝난 후 나타난 위풍당당한 무인의 검무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④ 전하께서는 곳은 날씨 속에서 뇌성과 함께 갑자기 종적을 감추셨고, 소신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워낙 꿈이 생생한지라 ⑤ 소신은 꿈에서 겪은 일을 의기가 넘치는 친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전하를 뵈오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전하,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빠른정답.

4	1	3	4	2
5	2	4	5	1
4	2	3	2	

[1~6] (시가복합) (가)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 (나) 기형도, ‘기억할 만한 지나침’ / (다) 이달, ‘유씨 집의 외로운 기러기를 읊다[詠柳家孤鴈]’

(가)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북간도는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빼앗긴 농민과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강제이주자 등이 조선에서 떠밀려가 정착한 곳이다. 이 시는 두만강을 넘어와 북간도에서 만난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내’를 통해 비참한 민족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 기형도, ‘기억할 만한 지나침’

인간의 체험은 구체적인 시공간과 결합되어 있어서 어떤 기억은 특정 시공간에서 체험한 일이나 분위기와 결부된다. 이 시의 화자는 우연히 목격하게 된 ‘사내’와 관련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그의 처지나 상황에 공감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있다.

(다) 이달, ‘유씨 집의 외로운 기러기를 읊다[詠柳家孤鴈]’

기러기는 북방에서 여름을 보내고, 날씨가 추워지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겨울 철새이다. 그런데 이 시에 등장하는 기러기는 사람에게 붙잡혀 남쪽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의 화자는 기러기를 ‘너’로 지칭하면서 남쪽으로 날아가고 싶어도 날지 못하는 기러기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고향인 전라도를 떠나 ‘북간도’에 오게 된 ‘가시내’, (나)는 눈이 퍼붓는 깊은 밤에 ‘좁고 큰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내’, (다)는 사람에게 붙잡혀 ‘유씨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러기’의 상황과 관련한 연민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2. [출제의도]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1연에서는 고향인 전라도에서 온 ‘너’의 ‘눈’이 바다처럼 푸르고 ‘얼굴’이 까무스레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시내’의 고향이 바다에 인접한 곳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 ‘너’가 전라도에서 비참한 삶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다.

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는 ‘좁고 큰 방’에서 울고 있는 ‘사내’의 슬픔이 ‘나’에게 전이되고 있음을 형상화한 부분이다.

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시어나 시구를 해석한다.

‘근심이 없다 한들 네 어찌 풍족하랴’에는 ‘유씨 집’에서 기러기가 ‘본성’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잘 나타나 있다.

5. [출제의도] 작품 속 공간의 의미를 파악한다.

‘슬막’에서는 함경도 사내인 ‘나’와 전라도 가시내인 ‘너’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곳’에서는 ‘좁고 큰 방’에서 울고 있는 ‘사내’와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6.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와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은 사람에게 붙잡혀 ‘유씨 집’에서 지내게 된 ‘너’가 본성에 따라 사는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설의적 표현은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인데, ㉠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7~10](현대소설) 이동하, ‘장난감 도시’

초등학교 4학년인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사 와 1년 동안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을 ‘나’의 회고 형식으로 서술한 작품이다. 한국 전쟁 이후 도시의 어둡고 비참한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가난하고 외롭고 폭력적인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 비참한 현실을 견디어 가는 인간의 내면적 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다.

7. [출제의도] 시간의 흐름에 맞게 줄거리를 파악한다.

‘나’의 누나는 두부 공장 집 민머느리가 된 상태이며, 누나가 집에 와 있던 어느 날 ‘두부살의 오빠’가 찾아오는 사건이 발생한다. ‘나’는 또한 과거 어머니가 살아 계실 적 어머니와 함께 외삼촌댁에 방문한 적이 있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누나가 두부 공장에서 일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따라서 가장 앞서 일어난 일은 ‘나’가 외삼촌댁에 방문한 사건이다.

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의 곁을 떠난 것, ‘나’가 과거 외삼촌을 만나 ‘녹슨 총기 냄새’를 맡은 것, 누나가 두부 공장 집 민머느리가 되어 ‘나’를 찾아오곤 하는 것, 다리 한 짝이 없는 매형이 누나를 찾아온 것 등은 ‘나’의 체험을 서술한 내용이다. ‘나’가 누나의 결혼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 누나와 매형에게서 ‘녹슨 총기의 냄새’가 난다고 느끼고 혐오감을 갖는 것 등은 이러한 체험에 대한 ‘나’의 심리와 태도를 서술한 것이다.

9. [출제의도]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적용하여 작품을 이해한다.

[A]에서 ‘나’는 전쟁과 관련된 인물인 ‘외삼촌’과 ‘두부살의 오빠’에게서 ‘녹슨 총기 냄새’를 맡지만, ‘녹슨 무기’를 발견하는 꿈에서 충격을 받는 [B] 이후 [C]로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누나에게서까지 그 냄새를 맡고 혐오감을 느낀다. 이는 전쟁 불구자와 결혼한 누나를 비정상적 인물로 인식함에 따라 누나에게까지 <보기>의 심리적 반응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0.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감상한다.

‘나’는 가족도 없이 배고픔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결핍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나’의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누나가 두부살의 오빠와 결혼함에 따라, ‘나’는 누나를 향해 이질감과 적대감, 곧 ‘적의’를 느낀다. ‘나’가 느끼는, 누나를 향한 ‘적의’ 이면에는 곧 누나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누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욕망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누나는 ‘나’와는 달리 적대감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있으므로, ①에서와 같이 누나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렵다.

[11 ~ 14] (고전소설) 입제, ‘원생몽유록’

세조의 왕위 찬탈을 소재로 인간사의 부조리와 천도에 대해 회의를 드러낸 작품이다. 형식적으로 볼 때 입몽과 각몽이 뚜렷이 나타나 있고, 꿈속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드러나 있어 몽유록계 소설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다.

11.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작품은 자허가 꿈속에서 단종과 그 신하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물 간의 대화와 삽입된 노래를 통해 인물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12. [출제의도] 인물들의 행동과 정서를 이해한다.

이 작품에서 자허가 신하들 사이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임금은 노래를 통해 새 임금(세조)에게 왕위를 잃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13.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기이한 사내가 ‘썩은 선비들’이라고 질책하는 대상은 임금 주변에 있던 ‘다섯 사람’이다. 기이한 사내는 함께 대사를 꾸몄지만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으로 이들을 ‘썩은 선비들’이라고 말한 것이다.

1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복건 쓴 이가 선위라는 제도를 만든 옛 임금들, 선위를 핑계로 임금의 자리를 빼앗은 자, 신하로서 임금에게 반역한 자를 함께 비판하자 임금은 옛 임금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